〈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〉

모두 말씀

2018. 10. 17.(수)

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금융위원회 위원장

최 종 구

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□ 여러분 반갑습니다.
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□ 오늘 이 자리는,
최근 **은행권**의 **동산담보 제도정비**와 **상품출시**에 맞추어
은행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**애로사항을 청취**하여
동산금융이 **본격적으로 활성화**되는 **계기**를 마련하기 위한
자리입니다.

□ 바쁘신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,
은행장님들께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< ❶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배경 >

□ **이번 정부 금융정책방향**의
가장 중요한 과제가 **생산적 금융**입니다.

○ 가계부채·부동산 등 **비생산적 분야에 몰린 자금**을
생산적·혁신적 분야로 **물꼬를 돌려**
금융이 **실물성장을 지원**하고
그 과정에서 **금융의 경쟁력을 강화**해나가는 것이
금융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.

□ **생산적 금융의 확산**을 위해서는,
무엇보다 **은행권**의 **대출분야**에 대한
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.

□ 그동안 **부동산 담보**와 **공적보증에 의존**하는
은행의 **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**으로 인해
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
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·중소기업에게는
은행의 문턱이 크게 높았습니다.

○ **우리 중소기업은 600조원**에 달하는
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,
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,000억원에 불과합니다.

※ 중소기업의 **부동산 자산** : 400조원, 은행권 **부동산 담보대출 잔액** : 360조원

○ 대출과정에서 **동산자산이 사장**되고 있는 것입니다.

□ 정부가 지난 5월,
'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'을 발표한 것도
중소기업 자산의 **가장 많은 비중**을 차지하는
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○ **중소기업**의 **동산자산**이 **새로운 신용보강수단**으로
적절히 활용된다면,
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**창업·중소기업**이
보다 원활하게 **필요한 자금을 조달**할 수 있을 것입니다.
기업성장에 따라 **동산자산이 증가**함으로써
연속적인 성장자금 조달도 가능합니다.

○ 이와 함께 동산금융은 **동산자산의 다양성**으로 인해
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점도 있고,
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
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[왜 동산금융인가?]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 Win - Win

※ ① 기업이라면 **누구나** 가지고 있어 **부동산이 없는 창업, 초기중소기업**도 **담보대출 이용**이 가능

· "Key of Access to Finance"(World Bank)

②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**기업성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** → 담보력도 연속적·안정적으로 강화되어 **성장자금 공급**에 기여

· "Smooth Curve"(美 CFA)

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**경기변동에 덜 민감**하며 **유연한 대처** 가능

· "Asset Package is a Blend"(英회계협회(ICAEW))

④ 적절히 관리될 경우 **은행건전성도 제고**

· 적절히 관리될 경우 위험가중자산 계상(BIS 비율), 충당금 적립 등에 이점

< ❷ 동산금융 활성화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>

□ 정부는 **'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'을 마련**하는 과정에서, **종합적**이고 **포괄적**인 **개선방안**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.

① 첫째, 과거 동산담보 활용에 제한을 두었던 은행권의 **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를 개편**하였습니다.

-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, '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'을 **개편**하여, **동산담보 활용상의 제한**을 **대폭 완화**하였습니다.

- 개별 은행도 은행연합회의 **새로운 가이드라인**에 맞추어 지난 8월 **관련 내규를 전면개정**하였고 이에 따라 **동산담보 활용의 폭**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
[동산담보의 활용폭 확대] 은행연합회의 동산담보 가이드라인 개편(6.29일)
→ 개별은행 내규에 반영(8월말)

※ **(과거)** ❶제조업의 ❷일부동산(무동력기계, 원재료 등)만이 ❸전용 대출상품(1개)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❹담보인정비율도 40%로 획일화

(개선) ❶모든기업의 ❷모든동산이 ❸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❹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

② 둘째, 기업과 은행의 **활용유인을 높이기** 위해
정책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기업은행은 **중소기업**이 **동산담보를 활용**하여 **낮은 금리**로 **자금을 조달**할 수 있도록
지난 5월 **'스마트 동산담보대출'**을 출시하였습니다.

- **신용보증기금**은 6월 **'동산담보 특례보증'**을,
산업은행은 8월 **'동산담보 특별온렌딩'**을 도입하였습니다.

- 앞으로도 동산담보의 **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**,
정책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[정책금융 상품의 구체적 내용]

※ ① **기업은행의 "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"(5.28일 출시, 3년간 1조원)**

· 중소기업의 기계, 재고 등을 담보로 금리 우대(최대 1.3%p) 및 한도 확대(40% 범위내)

② **신용보증기금의 "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"(6.28일 출시, 3년간 0.5조원)**

·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특례보증을 신청시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% 內에서 최대 5억원 보증 지원(보증비율 90%, 보증료 0.2%p 인하)

③ **산업은행의 "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"(8.27일 출시, 3년간 0.5조원)**

· 산은이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대상업체, 대출금액 등 결정(한도 약 20% 확대, 금리 약 0.5%p~1.1%p 인하 효과)

③ 셋째, **법·제도적 미비점**도 **개선**하고자 합니다.

- **은행권**은 **동산담보 활성화가 더딘 주요 이유**로 **담보권자(은행)의 권리보호가 미흡**하다는 문제점을 **지속적으로 제기**하고 있습니다.

- 지난 5월,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면서, **은행권이 제기**하는 **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**에 대해서는 **모두 개선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먼저, **등기사항 증명서의 제3자 열람**,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**변경등기 허용** 등 **대법원 규칙개정**으로 **개선이 가능한 과제**는, 지난 **5월 규칙을 개정**하여 **8월초부터 시행**하고 있습니다.

- 그 외, 담보권 **존속기한 폐지**, 고의적인 훼손 등에 대한 **처벌조항 신설**, **동산담보 경매 시 집행절차 개선** 등 **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**는 현재 법무부와 **TF를 구성**하여 **구체적 법률개정안을 마련**하고 있습니다.

[제도개선 관련 구체적 내용]

※ ① **제도개선 완료** 사항(법원행정처, 5월 개정 → 8.1일 시행) :
⑴제3자 등기부등본 열람, ⑵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

② **제도개선 추진** 사항(금융위-법무부 공동 TF(9.21일 출범) 운영 중) :
⑴ 담보권 존속기한(현행 5년) 폐지 또는 기한 확대(10년) 검토
⑵ 등기주체 확대 검토 :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등기 허용
⑶ 처벌조항 신설 검토 : 고의 훼손·은닉·처분시 처벌조항 마련
⑷ 동산담보 경매 시 집행절차 개선 검토 :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담보권자에게 당연 배당
⑸ 사적실행 활성화 검토 : 사적실행의 요건을 명확화 또는 완화
⑹ 불가피한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(철강 구부림 등) 검토
⑺ 추가 검토 : ⑴일괄담보 도입, ⑵미래매출채권 담보 활성화

④ 마지막으로, **'평가-관리-회수'**라는,
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**인프라를 보완**해 나가겠습니다.

⑴ **평가의 신뢰성**을 높이기 위해
동산의 **회수율**과 **분석정보 등**이 담긴 **은행권 공동 DB**를
내년 상반기에 **구축**하겠습니다.

- 이와 함께 '**동산감정평가법인 Open Pool**'도
은행연합회를 통해 **연내 마련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⑵ 또한, IoT 등 **신기술 기반**의
사후관리 인프라 확산도 지원하겠습니다.

- **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**된
신기술 기반의 사후관리 방식은
현재, **시중은행으로 확산**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변화를 **제도적으로 적극 지원**하기 위해
4분기에는 **IoT 사후관리 표준기준**을 마련하여
불필요한 서류작업 등 사후점검 부담을 최소화*하겠습니다.

* 사진 기록물 보관 의무, 주기적 현장점검이 필수인 체크리스트 부담 완화 등

⑶ 나아가, **회수시장 활성화**를 위해 **관련 제도를 정비**하고,
기계거래소, 캠코 등 **매각 인프라**도 **개선**해 나가겠습니다.

- **4분기**에는 은행권 **'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' 개정**을 통해
동산담보 관련 사적실행 및 **처분 절차·기준**을 마련하고,

- **내년 상반기**에는 **기계자산 이력시스템 도입**(기계거래소),
매각시장연계 포탈(캠코) 등 **효율적인 매각인프라**도
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< ❸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 현황 >

□ 최근 **16개 은행**이 **모두 기존 대출상품을 개편**하였고, **그 중 4개 은행은 별도의 신상품을 마련**하는 등 은행권이 **동산금융 활성화**에 적극 나서면서 **중소기업**의 **자금접근성이 높아**지거나 **금융비용이 낮아**지는 **다양한 우수사례**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[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제고된 사례]

- ㅇㅇ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**유통업의 화장품 완제품을 담보**로 **10억원의 자금**을 지원

[중소기업의 금융비용완화에 기여한 사례]

- 기계제조업 D社는 '초정밀 고속 가공기'를 담보로 제공하여 **2.79%p 금리우대**, 보온단열제 제조업 E社는 '기계기구'를 담보로 제공하여 **5.36%p 금리우대**

ㅇ 또한, **일부 은행**을 중심으로 **신기술 기반(IoT) 사후관리방식**이 **도입, 확산**되면서 **은행권의 관리부담이 경감**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

※ **5개 은행**은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**연내 도입**(3개 은행은 기도입)할 예정이고, **5개 은행**은 **내년중 도입을 추진** 중이며, **4개 은행**도 **도입을 검토**

[은행의 관리부담 경감에 기여한 사례]

- (4.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비용)
- 경비용역 파견 : 1일당 약 8만원 × 30일 = **240만원**
- IoT 디바이스 부착 : 기계당 약 2만원(30일) × 기계 4.6개 = **9.2만원**

□ 짧은 기간이었지만 **그동안의 노력**의 결과, **4년 6개월간 지속해서 감소**했던 **동산담보대출 잔액**이 **지난 3분기말** 기준, **증가세**로 돌아섰습니다. 작지만 **의미있는 반등**이라 하겠습니다.

※ 동산담보대출 잔액(억원) : ('14.1Q) 6,007 → ('15.1Q) 5,297 → ('16.1Q) 4,162 → ('17.1Q) 2,912 → ('18.1Q) 2,066 → ('18.3Q) 2,345

○ 특히, **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**이
작년 이맘때와 비교하여 **3배가량 증가**한 점은
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.

※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(억원) : ('17.3Q) 172.5 → ('18.3Q) 515.1

○ 은행권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
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
앞으로 취급액이 **지속 증가**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< ❹ 당부말씀 >

□ **동산금융이 활성화**되면
중소기업의 **자금조달을 지원**하는
든든한 우군(友軍)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○ 은행권이 **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**합니다.
물꼬가 트이고 **경험이 축적**되면
동산금융이 **자금조달의 보완수단**으로
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□ 오늘 이 자리가 **금융권이 함께 머리**를 맞대어,
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,
우수 사례를 **함께 공유**함으로써,
우리 기업의 **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**할 수 있는,
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○ 은행장 여러분의
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○ 나아가 현장에서 느끼신 **애로사항이나 개선점**은
언제든 **가감 없이 제시**해주시면,
앞으로 **정책추진 과정**에
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**당부의 말씀 하나** 드리고 싶습니다.

○ 최근 **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부진, 내수정체** 등이
자동차 부품업계의 실적악화로 이어져,
자동차 부품산업이 **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**입니다.

○ 얼마전 **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**를 통해서도
많은 업체들로부터
해외판로 개척 등 **위기극복을 위한 노력**에도 불구하고
단기간내 **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**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

○ 금융측면에선,
금융권에서 **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전망을 어둡게 보고**
여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
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.

○ 지난 **정무위 국감**에서도 이에 대한 **지적**이 있었습니다.

○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나,
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,
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
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
○ 아시다시피, **완성차 업체를 중심**으로
수많은 1·2·3차 협력업체가 공생하는 자동차 산업은
고용·생산·수출 등
국가·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.

○ **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“뿌리”**인
부품업체들의 자금사정 등 **경영여건 악화**는
부품업체들의 R&D 경쟁력 뿐만 아니라,
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
이어지게 될 것입니다.

○ 금융당국에서도
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입니다만,
자동차 1대당 들어가는 2만여개의 부품수만큼이나
업체수가 많습니다.
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

○ 자동차 부품업체 **개별회사들**의
재무·경영상황을 **고려하지 않는 여신회수** 등
은행권의 ‘**비오는데 우산뺐는**’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
은행장님 여러분께서 **각별한 관심**을 기울여주시기를
당부드립니다.

○ 내가 부품업체 사장이라면 어떤 심정일까하는
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□ **자동차 부품업체의 지원**과 관련해서는,
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
별도의 **자리를 마련**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